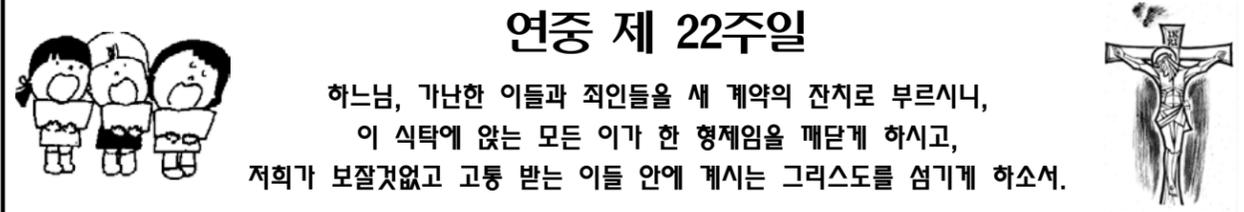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연중 제 22주일

하느님, 가난한 이들과 죄인들을 새 계약의 잔치로 부르시니,
이 식탁에 앉는 모든 이가 한 형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보잘것없고 고통 받는 이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소서.

9월 기도지향

- 류기범(요셉), 신혜경(마리아) 가정
- 김태중(예레미야), 김시연(엘리사벳) 가정

순교자 성월

한국교회는 해마다 구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순교란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느님과 하늘나라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순교자들의 굳센 믿음을 묵상하며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노력합니다.

신심미사

- 첫금요일 : 9/6(금) 오전 10시 미사 / 십자가의 길
- 첫토요일 : 9/7(토) 오전 10시 미사 / 미사 30분 전 묵주기도

구역 모임

- 1구역 : 9/7(토) 오후 7시, 이영민 엘리사벳 덕 7824 Woodstone Ln. Lenexa, KS 66217
- 2구역 : 9/7(토) 오후 7시, 안동현 프란치스코 덕 14317 Hadley st. Overland Park, KS 66223
- 3구역 : 9/6(금) 오후 7:30, 정수한 베드로 덕 14810 Goodman st. Overland Park, KS 66223
- 4구역 : 9/7(토) 오후 7시, 김병철 베네딕도 덕 15304 Foster st. Overland Park, KS 66223
- 5구역 : 9/7(토) 오후 7시, 문석찬 요셉 덕 8331 N. Kensington Ave. Kansas city, MO 64119

맨하턴 공동체 미사

- 일시 : 9/14(토) 오전 11시
- 장소 : 성 토마스 모여 성당

추석합동위령미사

9월 15일(주일)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에 감사드리고, 세상을 떠나신 조상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합동위령미사를 정성껏 봉헌합니다.

한인회 주최 추석잔치

- 일시 : 9/14(토) 오전 11시
- 장소 : Corporate Wood Founder’s Park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03	210	164/160	286

주일미사 복사

	항 복사	시종 복사
금주	정수한(베 드 로)	정준구(파비아노)
	정예찬(미 카 엘)	정병훈(보니파시오)
차주	이우영(가브리엘)	고영방(스테파노)
	이원준(요 한)	고평원(프란치스코)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안 젤 라)	홍순익(마르띠노) 최은미(아 네 스)
차주	김수연(율리안나)	정준구(파비아노) 박혜정(가타리나)

애찬 봉사자

금주	손정화, 한춘희, 황의정, 양정희, 유경애
차주	박혜정, 박계숙, 지은경, 김재은, 윤유나

헌금 봉사자

금주	문석찬(요셉), 최은미(아네스)
차주	김시연(엘리사벳), 백문주(엘리사벳)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08/18	92명	424불	1,510불
08/25	83명	405불	65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며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드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9월 첫날인 오늘,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닮아 가기를 다짐합니다.

성화해설

예수에게 병자와 어린이를 데리고 오다
(렘브란트, 1647-1649년, 동판화,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소장)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 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루카 14,13) 믿음의 문에 이미 들어선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고(로마 10,17 참조) 그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을 실천한다는 것은 곧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우리의 이웃을 돕고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생명의 연대성’이라고 부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집회서 3,17-18.20.28-29 < 너를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

화 답 송 : 

하 느 님 은 자 비 로 이 없 는 이 의 집 을 마 련 하 셨 나 이 다

- 의인들은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추며 다만 즐기고 즐기나니 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은 주님이시로다. ◎
-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시로다. 하느님께서서는 외로운 이에게 집을 마련하시고 사로잡힌 몸들을 행복으로 이끄시는도다. ◎
- 하느님께서 당신 산업에 넉넉한 비를 내리시어 강마른 그 땅에 생기를 돋우셨나이다. 당신의 양 떼가 그 안에 살았으니 하느님께서서는 자비로이 없는 이의 땅을 마련하셨나이다. ◎

제 2 독서 : 히브 12,18-19.22-24
<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 산이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도성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

복 음 : 루카 14,1.7-14 <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

쉐 마

“끝자리에 앉아라!”



연중 제22주일이면서 순교자성월의 첫날이다. 교회는 신앙의 해를 맞아 ‘신앙의 재발견과 교회의 쇄신’이라는 주제를 앞세워 순교자들의 열정적 신앙을 재조명하고, 동시에 신앙 선조들이 살았던 교우촌이나 치명했던 장소 등지에 순례를 권장하고 있다. 그만큼 이 시대 신앙인들 삶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다.

어떤 신부님은 “치명터나 교우촌 등지를 순례하는 사람은 많아도 이 시대를 위해 순교할 순교자는 왜 없는가”라고 한탄했다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저마다 상대방더러 순교자가 되기만을 바라고 자신은 그저 순교지를 순례하는 순례자이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순교자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지난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풀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풀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루카 13,30)라고 하셨고, 오늘은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루카 14,10) 하셨다. 이어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루카 14,11)라고 하신다.

순교자의 태도는 순교하기 전에 우선 ‘끝자리에 앉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오로처럼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필리 4,11-13)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순교의 영광을 차지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끝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는 곧바로 바보 취급당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남들보다 더 늦게 들어왔으면서도 남들보다 앞자리에 앉아야 하고, 공부라면 언제든지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재산이나 권력이라면 그것으로 남들을 내리누를 수 있을 만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대 사람들 논리라면 논리다. 그 논리는 다분히 탐욕적이며, 상대방을 굴복시켜 주저앉히거나 끌어내려 기어이 끝자리로 내몰려는 반인륜적 사

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논리가 마지막까지 통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일이란 것이 자기 뜻대로 이뤄질 정도로 그렇게 녹록하기만 한 걸까? 인류가 걸어온 역사를 되짚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진리다.

예부터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닐 것이다. 권력은 기껏해야 10년을 못 넘기고, 화려한 꽃이라도 열흘을 넘기는 경우가 없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우리네 인생살이도 결국 아무리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써도 10년도 못 가는 권력, 열흘도 못 넘기는 꽃일진대, 저마다 권력을 탐하고 화려함을 추구하려 드는 까닭은 무엇일까? 차라리 함께 서로 돕고 의지하고 나누고 섬기며 살 생각을 한다면 모두가 1등의 삶, 화려한 삶을 살고 누릴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사실 남의 생각을 바꾸기란 쉬워도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의 틀을 바꾸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꾼다는 뜻과 같다. 회개(悔改)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못된 마음심보를 고쳐먹는 일, 끝자리에 앉을 줄 아는 일,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일이 아니겠는가? 순교자성월 첫날을 보내면서, 주님을 위해 목숨마저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봉헌한 순교자들 삶을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는 물질과 권력과 학력 등등의 ‘최고지상주의’의 틀을 벗어 버리고 주님 닮은 가장 낮은 곳에서 있어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

신앙의 해를 보내면서 신앙의 재발견과 교회의 쇄신을 희망하려면, 먼저 끝자리에 앉을 줄 아는 용기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이미 끝자리에 앉아 있는 형제 자매들을 존경할 줄 아는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 박해 시대를 살았던 선조 신앙인들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자기 자리를 이웃들에게 내어 줄 줄 아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오히려 끝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리는 내어주지 못할망정, 함부로 깔보고 멸시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 안동교구 신대원 신부 -

마중물

성체의 힘

마더 테레사가 소속한 수도회의 수녀들은 하루에 의무적으로 1시간씩 제대 위에 현시된 성체를 흠송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집 없는 사람들이나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언제나 묵주기도를 바친다. 마더 테레사는 모든 위험에서 수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은 ‘성모님’ 이라고 했다. 마더 테레사와 그 수도자들이 매일같이 희생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뿌리에 대해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800년 만에 미사가 봉헌되고 성체를 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서 항상 힘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 한 주간도 일을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모두는 빵의 형상으로 제대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또 그분을 뵈올 수 없는 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중노동입니다. 아침마다 미사에 참여하고 또 영성체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멘의 수상께서 우리 수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신부님 한 분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수녀님들을 보내드리겠다고요. 수성님은 제안을 받아들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멘에서는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



51.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참여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강생하신 하느님으로서 당신 위격 안에서 “당신을 모든 사람과 어느 모로 결합시키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만 아시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파스카 신비에 참여할 가능성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속량을 위한 당신 희생 제사의 첫 수혜자들인 바로 그들이 당신 희생 제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속량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긴밀히 참여한 분은 바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이십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18항).

52. 세례 받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세례의 본래적이고 온전한 표징은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면 사람이 죽듯이, 물에 잠기는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죄에 대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힘을 효과적으로 나타냅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로마 6,4).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